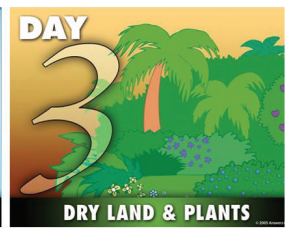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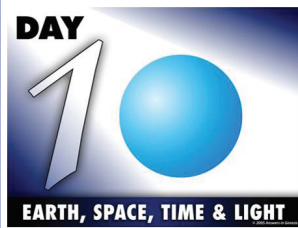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안식일의 주인

창세기를 통한 복음1

2001년 뜨거운 여름 아리조나 피닉스에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문에서 노크소리가 들렸다. 열어보니 두 명의 젊은 서양 여자가 서있었다.

“저희 방의 에어컨 끄는 것을 도와주시겠습니까?”

미국인처럼 보이는데, 에어컨 작동을 못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기는 했지만 내 방에 있는 에어컨을 보여주며 끄는 법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손을 내저으며,

“저희는 에어컨을 끄지 못합니다. 유태인이고 오늘이 안식일입니다. 직접 방으로 와주세요”

그리고 보니 그날이 토요일, 이들에게 안식일이었던 것이다! 방으로 들어가보니 에어컨이 언제부터 켜있었는지 방이 얼음장 같았다. 방에 돌아와 과연 유태인에게 안식일이 무엇인지 성경을 뒤져보았었다. “옛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약속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출 35:2). 만약이 그날 이들 중에 한 명이

에어컨을 작동했다면 죽어야 했다?!

구약성경을 보면 안식일이 여러 번 강조되어있다. 이는 너무나 엄격해서 범할 경우 사형에 해당될 정도다. 과연 안식일이 뭐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죽일 만큼 양보하실 수 없단 말인가? 그 이유가 가장 확실히 등장하는 곳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주실 때이다. “이는 옛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출 20:11). 이 계명은 창세기 1장, 즉 창조하시던 이 세상이 경험했던 첫 주간을 의미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한다. 이때 ‘태초’라는 시간이 창조된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시간뿐 아니라 시간의 단위도 정하셨다. 바로 ‘날(day)’과 ‘해(year)’다. 첫째 날 지구를 창조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창 1:5). 지구만 가지고 날(day)이란 시간의 단위를 정하신 것이다. 즉 지구는 처음부터 자전하였으며 하루라는 단위의 기준이 된 것이다. 그리고 넷째 날 태양을 만드시며, ‘연한(year)’이란 또 다른 시간의 단위가 등장한다. 즉 자전하던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기 시작한 것이다. 하루가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어나며 일년은 지구가 태양주위를 공전하며 일어난다는 생각은 16세기 코페르니쿠스 이후에나 깨닫게 되었지만, 성경은 이미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날과 해와는 전혀 다른 주기가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주(week)다. 이 일주일은 어떤 천문학적 주기와 일치하지 않는 특이한 주기다. 보이는 어떤 것도 칠 일이란 주기와 일치하는 것은 없다. 사람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불편한 주기다. 그런 의미에서 7일 이란 주기가 사람의 생각에서 등장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 세상에 창조의 첫 주간을 경험한 어떤 사람도 없다. 첫 사람 아담조차도 여섯째 날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첫 주간을 완전히 경험하지 못했다. 오직 창조주만이 경험했다. 그러므로 날과 해는 창조주간에 그 자리에 없었어도 지킬 수 있지만, 일주일만은 오직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창조주를 통해서만 알 수 있으며, 그분을 인정하는 척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자를 죽이라고 하신 것은 죽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 창조주를 앎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함 같이 사형에 처할 또 다른 죄를 말씀하셨는데, 해, 달, 별에게 절하는 것이다. 이들도 “돌로 쳐 죽이라”(신 17:3-5)고 하셨다. 둘 다 사형 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과 별들에게 절하는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셨을까요? 여기서 그 의미가 확실해진다. 양쪽 모두 피조물을 생명 되신 창조주보다 위에 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범하는



제 4 계명은 6일간 창조하신 창조자를 기억하는 날

자나 피조물에게 절하는 자나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신 창조주 되심을 믿지 않는 죄악 된 행위며, 역으로 이를 범할 경우 생명 되신 하나님을 잊었으므로 이미 죽은 몸이나 다름 없다. 그러므로 사형에 처할 중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홍수심판의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과 노아도 칠 일이란 주기를 사용하였고, 그 의미를 두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홍수가 나기 칠 일 전에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하였고(창 7:1, 4, 9, 10), 노아는 칠 일 주기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낸다(창 8:10, 12). 그러나 홍수 후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후손들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대가 넘어가며 이 주기가 막연해지거나 주기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그 일주일의 기원에 대하여는 더욱더 알 길이 없어진 것이다. 이는 칠 일이란 주기는 어떤 보이는 것과 연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세대가 잊어버리면 회수될 수 없다. 결국 세대를 거치며 보이는 것을 통한 시간의 단위 밖에는 안 남게 되는 것이다.

바벨탑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출애굽 시키시는 동안 십계명 속에 일주일 주기의 기원을 확실히 알려주시며 이를 명문화하신 것이다. 그리고 창조를 마치신 후 일곱째 된 날 자신이 쉬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며 자신의 형상인 우리도 함께 쉬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형상임을 인정하신 것이며,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기를 원하는 그분의 마음을 엿보게 하신 것이다.

19세기 등장한 진화론은 수 억년을 거쳐 인간이 진화되었다고 말하며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옛새 간의 창조와 제 칠일을 더욱 희미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후에 크리스천 가운데는 하루를 지질학적인 수 억년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창세기 1장을

문학적 표현으로 보자는 사람도 등장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모두 수십 억년의 진화역사를 수용했기 때문에 등장한 것이다.

과연 이런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옛세 동안 창조하시고 제 칠 일에 쉬셨다는 것은 거짓말인가? 안식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단 말인가? 이를 지키지 않은 자들을 죽이라고 하신 것은 무슨 말인가? 교회에서 진화론을 수용한 이후, 간단히 해결될 안식일에 대한 해석이 복잡해졌다. 창조 첫 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로 안식일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설명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식일의 탄생에 대한 사실보다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과연 '의미'가 '사실'보다 더 중요할까? 성경 어디를 보아도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어떤 의미도 찾아 볼 수 없다. 언제나 사실일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마 12:8)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그분이 옛세 동안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며(요 1:3; 골 1:16), 칠 일의 주기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며 당시 유태인들이 볼 때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 같았지만 궁극적으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셨으며, 스스로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며 창조자임을 드러내는 두 가지 모두를 성취하신 것이다.

더 나아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삼 일만인 안식 후 첫 날(눅 24:1), 지금의 주일에 부활하셨으며, 우리가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칠 일마다 찾아오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께서 옛세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신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있다는 가슴 벅찬 고백인 것이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에게는 한 달, 한 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주'다. 하나님께서 한 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았거나, 하루의 아침 새벽기도 드리지 않았다고 죽이라고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일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죽이라고 하신 것이다. 창조과학자가 옛세 동안의 창조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일 주일은 진짜 하나님께서 행하신 첫 주에서 나왔으며 온 우주를 초월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의 주기인 매 주(every week)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 힘을 얻는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자의 성품과 능력을 보여주는 사실이 기록되어있다. 성경은 마태 복음부터도 아니고, 창세기 12장부터도 아니고, 창세기 1장부터이다. 이 성경 전체가 복음을 말하고 있다. 복음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출발한다.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15차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 모집 안내



유학생 / 신학생 탐사여행은 한국의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이재훈), 알바인 온누리교회(담임목사 권혁빈)의 후원으로 년 2회 여름과 겨울에 진행하고 있는 특별한 창조과학탐사여행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 박사 후 과정에 있는 학생과 배우자가 참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참가할 경우 자녀에게는 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또한 원활한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 어린 자녀의 참석은 가능한 한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2013년 1월 2일-4일(수-금)

경유지: 모하비 사막, 세도나, 그랜드캐년 국립공원

인도자: 이재만 선교사 (지질학, 과학교육학, 구약학, 창조과학선교회 부회장)

참가비: 유학생과 배우자 \$100.00 (온누리교회의 후원 \$220.00)

유학생 가족 \$320.00

참가신청: 창조과학선교회의 웹사이트(HYPERLINK "http://www.HisArk.com" www.HisArk.com) ACT Event에 있는 "2013/1/2-4 유학생 탐사(15차)" 에서 신청서를 다운/작성하셔서 참가비와 함께 "HisArk"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참가자 선정(선착순 50명): 겨울철 유학생탐사여행은 11월 말까지 캘리포니아 주 이외의 참가자들에게 우선권을 드립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12월 초에 참석 여부를 알려 드립니다. 미리 신청 하시면 선착순으로 접수/처리합니다.

모이는 장소 (자세한 내용은 참가 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Los Angeles 주님의영광교회
2. Las Vegas공항
3. Las Vegas 김치식당

문의 사항: 창조과학선교회 213-381-1390; hisark@gmail.com

힉스입자 발견과 빅뱅이론



지난 호(Creation Truth 09, 2012)에서 그동안 고에너지 입자물리에서 추구해오던 신의 입자 또는 마지막 입자의 발견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그리고 입자 가속기를 통한 실험이 우주의 생성을 증거하는 실험이 될 수 없음을 설명하였다. 빅뱅이론이나 입자가속기를 통한 입자 충돌실험은 물리학의 근본 법칙인 열역학 제1법칙과 제2법칙에 따른 관점에서 우주의 진화와는 대치되는 실험임을 다루었다.

그럼에도 지난 7월 4일 과학기술자들이 힉스입자일 가능성이 높은 입자를 찾았다는 대대적인 보도 후에, 그렇다면 “힉스입자의 존재 확인으로 빅뱅이론이 더욱 확실해진 것 아닌가요?” 또는 “힉스입자 발견으로 빅뱅이론이 실험적인 증거를 갖게된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을 해온다. 한 마디로 이에 대한 대답은“아니오”이다.

보통 입자라고 하면 작고 둥근 공기들 크기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입자 물리에서 입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간단한 입자들이 아니며 그 현상 또한 매우 복잡하다. 입자 가속기 내의 입자 충돌실험은 양성자 입자를 작게 깨뜨리는 하나의 분쇄기술이라고 하겠다. 양성자 빔(Proton beam)을 만들어 이를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시키고 가속된 두 빔을 서로 충돌시켜서 이 때 발생하는

고열 상태에서 수 많은 파편 입자들을 분석하게 된다.

빅뱅 과학자들은 가속된 양성자빔의 충돌실험을 통하여 극히 작은 스케일이지만 빅뱅(대폭발)이 일어나는 순간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연구소 개관 당시 아이머(Robert Aymar) 소장은 “이 거대 입자 가속기는 우주 창조에 대한 시각을 바꾸기 위해 제작되었다”고 공언하였다. 즉 빅뱅이론에 따라서 고에너지 입자덩어리가 폭발한 후 초기에 우주의 물질들은 어떤 상태였는지 실험을 통하여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다. 물론 무엇 보다도 지금까지 미스터리로 알려진 표준모델의 16개 입자(쿼크입자 6개와 매개입자 2개, 경입자 6개와 매개입자 2개)로 하여금 질량을 갖게 하는 힉스입자 존재를 알아 내는 것이 연구의 핵심이었다.

빅뱅이론을 받아드리는 기독교 과학자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그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적어도 빅뱅의 방법을 사용하셨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했다는 말은 대폭발을 통해 우주가 창조되었다는 빅뱅개념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대폭발 이론은 지난 100여년 동안 정교하게 수정되고 보완된 이론이며, 우주배경복사(Cosmic microwave background radiation)를 비롯한 증거들이 발견되었고, 이번의 힉스입자 발견도 대폭발 이론을 지지하는 분명한 연구결과라고 주장한다.

이는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빅뱅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타협하고 있는 입장이다. 충분히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적색편이나 우주배경복사를 빅뱅의 증거로 아예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날 왜 빅뱅이론에 관련된 수백 명의 현역 과학자들이 이 이론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참고: www.cosmologystatement.org)지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번 입자 가속 충돌 실험은 이론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자연주의 진화론에 입각한 것이다. 크리스천들은 고에너지 상태의 입자를 연구하는 페르미 연구소나 CERN 연구소와 같은 대형 연구소가 취하는 자연주의 입장에 그대로 동조할 필요가 없다.

크리스천 지도자들은 해석의 문제라고 하면서 굳이 결함이 많은 이론을 붙들 필요가 없다(참조: www.hisark.com ACT 이동용 컬럼 #39, 빅뱅은 성경적인가? #40, 빅뱅이론은 과학적인가?). 빅뱅이론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고후 10장 5절) 자연주의 이론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날 물리학에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물질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법칙임을 잘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첨단 과학 시설과 장비로도 무에서 티끌 먼지(에너지) 하나도 만들어(창조) 내지 못한다. 과학은 가장 근본이 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왜 존재하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해답을 주지 못한다. 오직 성경만이 창조(히브리어로 바라)를 바르게 가르치고 있을 뿐이다.



이동용 박사
항공기계공학



탐사여행

안산동산교회

지난 9/7-13일 일주일간 안산동산교회(담임목사 김인중)에서 탐사여행에 참석했습니다. 안산동산교회에서는 매년 봄 가을 두 번씩 탐사여행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녀오신 분들의 적극 추천으로 횡수가 거듭할수록 그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IGM 창조과학 탐사여행

International Grace Ministry (Sr. Pastor James Shin)는 지난 9월 20-22일 40 명의성도들이 참가한 영어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김선욱 박사의 인도로 다녀 왔습니다. 그 중에는 다섯 명의 필리핀 목사님들이 있었고 선교사 부부 한 가족도 있었습니다. 투어 참가자들은 엄청난 창조자 예수님과 그분의 놀라운 작품들을 본 간증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KPCA 서중노회 창조박물관 견학

KPCA 서중노회는 지난 9월 12일 노회 수양회 기간 동안 샌디에고 '창조와 지구역사 박물관'을 견학하였습니다. 70 여 명이 참가한 이 견학을 통해 창조와 역사 가운데 들



어 있는 복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견학에 참석하셨던 남가주동신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님(김정우)은 청년들을 위하여 견학을 요청하여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재만 선교사 한국 방문

이재만 선교사는 9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기간 동안 한동대학교와 전주대학교를 비롯하여 동산고등학교, 이랑학교, 이랑학교, 안양 목회자 포럼, 창조과학회 전북지부, 한밭 제일 어머니 기도회, 서울 드림교회, 전주 동은교회, 인천 대대교회, 파주순복음 풍성한 교회, 대전 온누리교회, 부산 동산교회, 헛볼트리니티 CEO 스쿨,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두란노 새벽나라 등에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중부 창조과학학교

시카고의 중부 창조과학학교 제 13 기가 제일한인장로교회(담임목사 서삼선)에서 16명이 등록한 가운데 9월 17일부터 10 주간의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담임 목사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기 있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기타 창조과학 세미나

- 9/7-9 Church of Bethlehem Chicago(김선옥), IL
- 9/9, 16, 23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 9/14-16 Renewal Community Church in Bristow(김선옥), VA
- 9/14-16 몽고메리늘푸른장로교회 (이재만), AL
- 9/23 LA 온누리교회 (최우성), CA



IGM 탐사여행

들풀



사람들의 손길이 가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도 별로 받지 못하는 들에 나는 여러가지 식물들을 통틀어 그냥 “들풀”이라고 부른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들풀처럼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들풀들을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식물학자들이다.

수 많은 식물학자들이 이 무명의 들풀들을 찾아 이름(학명)을 붙였는데 식물들이 각 지역마다 약간씩 다르기도 하고 학자마다 다른 이름을 붙이기도 해서 대부분의 식물들이 한 가지 이상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게 되었다. National Geographic에 실린 몇 가지 예를 보면, 데이지(Daisy)란 꽃은 29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영국 참나무(English Oak)는 무려 314가지, 대형 세쿼이아 나무는 18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 식물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마치 사람과 같습니다. 눈 색깔, 모양, 크기가 다르지만 우리는 다 (같은) 사람들이죠. 한 종(species) 안에 엄청나게 큰 변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변이의 다양성을 ‘진화(evolution)’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진화론자들이다. 진화의 증거가 과거에 살았다는 생물의 흔적인 화석에도 없고 지금도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특이한 변이(variant)가 생겨 나면 이것에 “소진화(micro-evolution)”란 타이틀을 붙이는 것이다. 갈라파고스 섬들에서 발견 되는 다양한 종의 핀치새들, 라마를 포함한 다양한 낙타들, 호랑이와 사자 등 고양이과에 속한 수십 종의 동물들, 늑대와 자칼, 그리고 수백 종의 개 순종들을 포함하는 개과 동물들, 돌연변이로 항생제 저항성을 갖는 박테리아가 생겨 나는 것 등을 소진화의 예로 들고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공업화로 인한 나방의 색 변화를 소진화의 예로 들기도 하는데

이것은 나방의 색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나방의 숫자만 변한 것이다! 더구나 이 실험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런 변화들은 유전정보가 약간 늘어난 '소진화(micro-evolution)'가 아니라 모두 다 유전자 재조합이나 유전정보가 약간 줄어든 돌연변이 때문에 한 종류(kind) 안에서의 변이(variation)가 일어났을 뿐이다.

변이가 수백만 혹은 수억 년 계속 되면 엄청난 양의 유전정보를 획득한 대진화(macro-evolution)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진화론자들의 입에서 벌써 나왔다. 지난 1980년 시카고의 필드 뮤지엄에서 있었던 진화학회에서 소진화로는 대진화를 설명할 수 없다는 확실한 결론이 내려졌다(Science, vol. 210, p883-87, 1980). 이쯤 되었으면 진화를 포기하면 좋으련만 진화의 믿음은 진화 된(?) 진화론을 과학이란 이름으로 계속 만들어 내고 있다. 창조된 한 종류(kind) 안에서 변이의 가능성은 거의 무한하지만 언제나 그 종류 안에 머물게 된다. 돌연변이가 계속 쌓이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지 전혀 새로운 생명체로 진화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돌연변이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전정보만 망가지는 것이지 새로운 유전정보가 생겨나는 변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름 모를 들풀들을 들어 우리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해 주셨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6:30; 누가복음 12:28). 창세기 1장의 창조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우주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마태복음 16:26). 우주에 존재하는 수 많은 별들은 모두 다 지구를 꾸미는 장식품일 뿐인데 그 지구는 사람을 위하여 창조(이사야 45:18) 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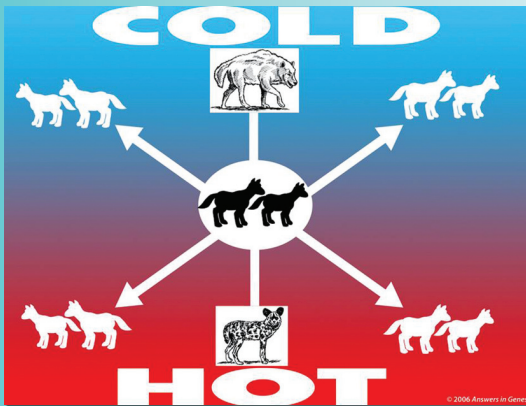
최초 인류는 약 6000여 년 전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창세기 1장, 2장).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설명해 준다(누가복음 3:38). 이 설명을 듣고 보면 “아하!”라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온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그렇게도 기뻐하셨는지, “왜” 죄 지은 아담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노아 당시 그렇게 한탄 하셨는지, “왜” 율법을 주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 하셨는지,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고 땅 끝까지 전도 하라고 하시는지, “왜” 아빠라고 부르라 하는지 너무 쉽고 분명하게 알게 된다.

들풀도 돌보시고, 수천억 개의 별들도 이름대로 아시며, 참새 한 마리의 죽음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정체성이 진화론으로 흔들리고 있다. 진화론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쉽고 간단한 답들을 흐려 인류가 갈팡질팡하다가 죽도록 몰아가고 있다.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 그러나 타락 후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할 죄인들인 것이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최우성 박사
생리학

생물학적 적응과 유전적 다양성



하나님은 생물들에게 새로운 환경이나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주었다. 적응은 창조된 생물이 종류 안에서의 다양한 변이를 가능하게 하는 유전적인 다양성 때문에 가능하다. 모양, 색깔, 그리고 크기 등에서 큰 다양성을 가진 개들이 변이의 예들이다. 사람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변이를 볼 수 있다. 한 종류 안에서 생물들의 다양한 모습을 표

현형(phenotype)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표현형들은 대체로 유전정보 구성(genetic makeup) 즉 게놈(genome, 전체 유전정보)의 차이 때문이다. 우리는 게놈에서 DNA 염기서열의 변이 즉 유전적 다양성(genetic diversity)을 볼 수 있다.

동물을 근친교배(가까운 친척의 짝짓기) 시킬 경우 해로운 돌연변이가 축적되어 표현되는 것을 통해 생물이 적응하는 데 유전적 다양성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근친교배는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을 낮추어 덜 건강하고 적응력도 낮은 생물체들이 생겨나게 한다. 자가수분(self-fertilizing)하는 꽃을 가진 식물들일지라도 꽃가루가 바람을 통해서 혹은 곤충 등을 통해 전달되어 종류들 사이에서 타가수분(cross-fertilizing)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것이 그 식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증진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유전적 다양성은 게놈의 각 부분의 성질과 관련되어 있다. 창조된 종류 안에서 게놈을 서로 비교해 보면, 어떤 부분은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각 생물체마다 매우 비슷하지만, 어떤 다른 부분은 아주 많은 차이를 보여 준다. 이런 현상을 보면, 유전적 다양성은 식물과 동물에 심어 놓은 하나님의 설계의 일부임 분명하다. (하지만 그 다양한 부분은 분명한 한계가 있는 시스템으로 무한히 다양해지지는 않는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유전적 변이 시스템들을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DNA 염기서열의 다양성이 원인이 된 변이도 있고, DNA를 포장하는 단백질에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난 것이 유전되어 변이가 되는 경우도 있다. 과학자들은 후자의 유전적 변이를 유전외적 변이(epigenetic modification)라 부른다. 이 경우에는 DNA 염기 서열은 바뀌지 않지만 그 기능에 영향을 미쳐 유전적 변이에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생물의 복잡한 특성들은 많은 수의 유전자들이 관련(multigenic)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반

면에 단순 유전은 대부분 하나 또는 계놈의 한 두 지역에 의해 제어되는 특성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런 유전의 예로는 눈 색깔, 머리 색깔, 등과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최근 창조론자의 사슴 털 색깔에 관한 연구 논문은 자연에서 이런 형태의 다양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 주었다.

예상과는 다르게, 적응과 관련되어 표현되는 특성들이 단순한 것이건 복잡한 것이건 대부분은 생물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반응들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적응은 수 많은 유전자들의 영향이 종합 된 결과인데 여러 환경에서 복잡한 DNA 지도 작성 실험을 통해 연구 된다. 이런 서로 연관 된 수 많은 복잡한 데이터를 통계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면 계놈 영역의 여러 지역들을 알아낼 수 있고 그 지역의 유전정보들이 변이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도 알 수 있다.

유전적 다양성에 관련 된 또 다른 궁금증은 변이에 관련 된 DNA 염기서열 특징의 유형에 관한 것이다. 여러 창조 과학자들은 창조된 종류 안에서 유전적 다양성이, 자리를 옮기는 유전정보 (transposable element)와 눈에 보이는 결과인 단백질을 만들지 않는 DNA정보 때문에 생겨 난다는 자료와 모델을 발표해 왔다. 유전정보에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정보와 단백질을 만들지 않는 유전정보가 있다. (사람의 경우 후자의 정보가 전체 정보의 98%를 차지하는데 과학자들은 그 기능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단백질을 만들지 않는 특정 염기서열들(유전정보)은 창조된 종류의 유전적 다양성을 설명하는 모델에 요긴하게 사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자들은 계놈에서 그 단백질을 만들지 않는 부분을 연구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의 정보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여러 가지 양상으로 표현되도록 조절하는 극히 중요한 불물창고라고 생각하고 있다.

Jeffrey Tomkins, Ph.D., ICR 연구원

출처: Tomkins, J. 2012. Mechanisms of Adaptation in Biology: Genetic Diversity. Acts & Facts, 41 (5): 8. ICR생물학 연구팀은 적응에서 유전자 다양성과 그것의 역할에 단백질과 상관 없는 DNA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창조론자와 세속 과학자들의 논문을 검토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 창세기 2:22-23

AFTER EDEN

by Dan Lietha

44

www.answersingenesis.org



© 2000 AIG

Dan Lietha

유학생 탐사여행 간증분

8/6-8/2012

진화론이 하나의 이론이기 전에 성경을 반대하는 사실인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헛된 주장이 이렇게 깊고 넓게 전해진 것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진리로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간과하지 않는 사역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리라 각오를 다집니다. 창조과학탐사여행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창조과학선교회와 이재만선교사님, 그리고 온누리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 서건오 목사(LA 은혜로교회)

요번 창조과학탐사여행을 통하여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법대를 졸업해서 창조과학을 어떻게 더 알릴 수 있을지를 생각했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수 있는 사람 그리고 법을 통해 미국 교육정책을 바꾸고 정치에 영향을 미쳐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나라로 될 수 있게 노력하구 싶습니다. - 서명아(앨바인온누리교회)

저는 저널리즘과 교육학을 전공했고, 교육과 미디어를 통한 차세대 사역을 제 비전으로 삼고 제 스스로는 나름대로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 탐사여행을 통하여 제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제 안의 그릇된 paradigm 과 불신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한 번 더 제 믿음을 확증하게 하셨습니다. ... 앞으로도 꼭 계속 이 창조과학탐사여행 후원 부탁드려요! 이 세미나는 65억 모든 인구가 들어야 하는 복음입니다. - 정혜주(앨바인온누리교회)

목사님의 추천을 받고 투어에 참석하기로 했을 때만 해도 제 마음속에는 제 아이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자 하는 인간적인 마음뿐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서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행은 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성경이 그저 상징적인 이야기일 것이라고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던 바로 나를 위한 탐사여행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고, 지금도 그 분이 살아 역사하심에 감격스럽습니다. - 전민정(시애틀형제교회)

창조과학탐사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듣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좋았던 것은 이재만 선교사님의 자세한 설명과 복음과 성경에 관한 열정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동안 무심했던 많은 부분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되어서 기쁩니다. 차량, 식사, 호텔 모든 것이 친절하고 좋았습니다. 후에 우리 아들도 꼭 보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 이혜연(아이엠교회)

주님 앞에서 질문하고 궁금했던 것들이 그저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져야 할 것 같은 것들이 이렇게 눈앞에 펼쳐지니 소름이 끼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택하셨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또 한 번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서리라(산타모니카온누리교회)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무오 함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믿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 풀리지 않는 궁금증을 덮어둔 채로 못 본 척 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곳에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 이신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납니다. ... 저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있습니다. ... 우리 아이들에게 거짓이 아닌 진실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겠습니다. - 김희정(선한목자교회)

강의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된 사실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 시대에 새롭게 말씀 속으로 진리 속으로, 사실 속으로 들어가 확신 있게 설명해 주신 이 재만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송조이(LA 사랑의교회)

비성경적 과학의 도전 앞에 무기력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조과학탐사여행'은 우리에게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의 손에 주어진 물맷돌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담대히 골리앗과 같은 세상과 맞서기를 기도드립니다. - 김성용(사랑의교회)

너무나 당연해서 잊고 살았던 나의 창조주!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다시 깨닫고 내가 이곳 미국에 왜 오게 되었는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다시 생각하고 재정비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훌륭한 프로그램을 후원하여 주신 온누리교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유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 한민기(춘천예담교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예수님! 또한 오늘날 말씀의 증거물을 뚜렷이 나타내 보이사 증표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참되고 복된 사실의 증거를 찾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 이창환 목사(청운교회)

기대했던 창조탐사여행이었습니다. 실제로 은혜가 넘치고 감격스러운 2박3일간의 여행이었습니다. 이번여행을 통해 창조과학의 목회적 적용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감당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 어느 여행보다 은혜로웠고, 편안했고, 풍성했던 여행이었습니다. - 이한웅 목사(사랑의빛선교교회)

저에게 주신 목회자의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더욱 확실히 다짐합니다. - 김영웅 전도사(드림교회)

저는 솔직히 진화론을 배운 입장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많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 진화론에 반론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정말 배워야 하는 것은 성경말씀이고 믿음으로 먼저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 이예슬(산타모니카온누리교회)

믿음에 대한 부분의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성경을 믿는 것은 보다 많은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배웠고 또 가르쳐지고 있는 많은 지식들과 성경과 다른 내용을 거스른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탐사여행을 통하여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넘어서 진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기초로 다시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이성도(선한목자교회)

● 요약되지 않은 원문은 홈 페이지(www.hisark.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11/2 한사랑교회 (CA, 이재만)
 11/5-7 창조과학 탐사여행 (뉴욕 퀸즈한인교회)
 11/10 ANC 온누리교회 집중 세미나(이재만, 최우성)
 11/12-14 창조과학 탐사여행 (나성순복음교회)이재만
 11/17 ANC 온누리교회 집중 세미나(이재만, 최우성)
 11/26-27 University of Nations YWAM, Kona HI(김선욱)
 12/10-14 창조과학 탐사여행 (대청)이재만
 12/27-29 창조과학 탐사여행 (샌디에고 한빛교회)
 12/27-29 창조과학 탐사여행 (파사데나드림교회)E.M. (김선욱)

2013년

- 1/2-4 창조과학 탐사여행 (얼바인 온누리교회) E.M. 김선욱
 1/2-4 유학생 탐사여행 (15차 유학생, 신학생) (이재만)
 1/2-11 Worldmission Univ. 겨울특강(이재만, 최우성), CA
 1/6 주님의영광교회(이재만), CA
 1/13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1/20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1/21-24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국 기감도봉지방교육부 비전트립) 이재만선교사
 1/27 주님의영광교회(이재만), CA
 2/15-17 오콜라호마 노만 한인침례교회(이재만), OK
 2/18-21 창조과학 탐사여행 (지구촌교회) 이재만
 3/11 동산고등학교 (이재만), 한국
 4/8-10 창조과학 탐사여행 (남침례교 국내선교부) 이재만
 4/15-18 창조과학 탐사여행 (포모나인랜드교회) 이재만
 5/10-16 창조과학 탐사여행 (안산 동산교회) 이재만
 5/17-23 창조과학 탐사여행 (성남 성안교회)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43 W Olympic Blvd #300, Los Angeles, CA 90015
 Tel. 213-381-1390 Fax 213-381-9242 www.HisArk.com / hisark@gmail.com